그날의 역사

제1호 1면 만든이: 3학년 학생들· 서희철 선생님 | 장흥장평중학교 | 2024년 11월 1일 월요일

1년간 글로컬 프로젝트 수업-동학 임진왜란 그리고 일본

장평중 학생들 '마을을 넘어 세계로'

장흥장평중학교에서는 '마을을 넘어 세계로'를 주제로 1년여 동안 글로컬(Glocal)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어왔다. 글로컬 프로젝트 수업의 취지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 세계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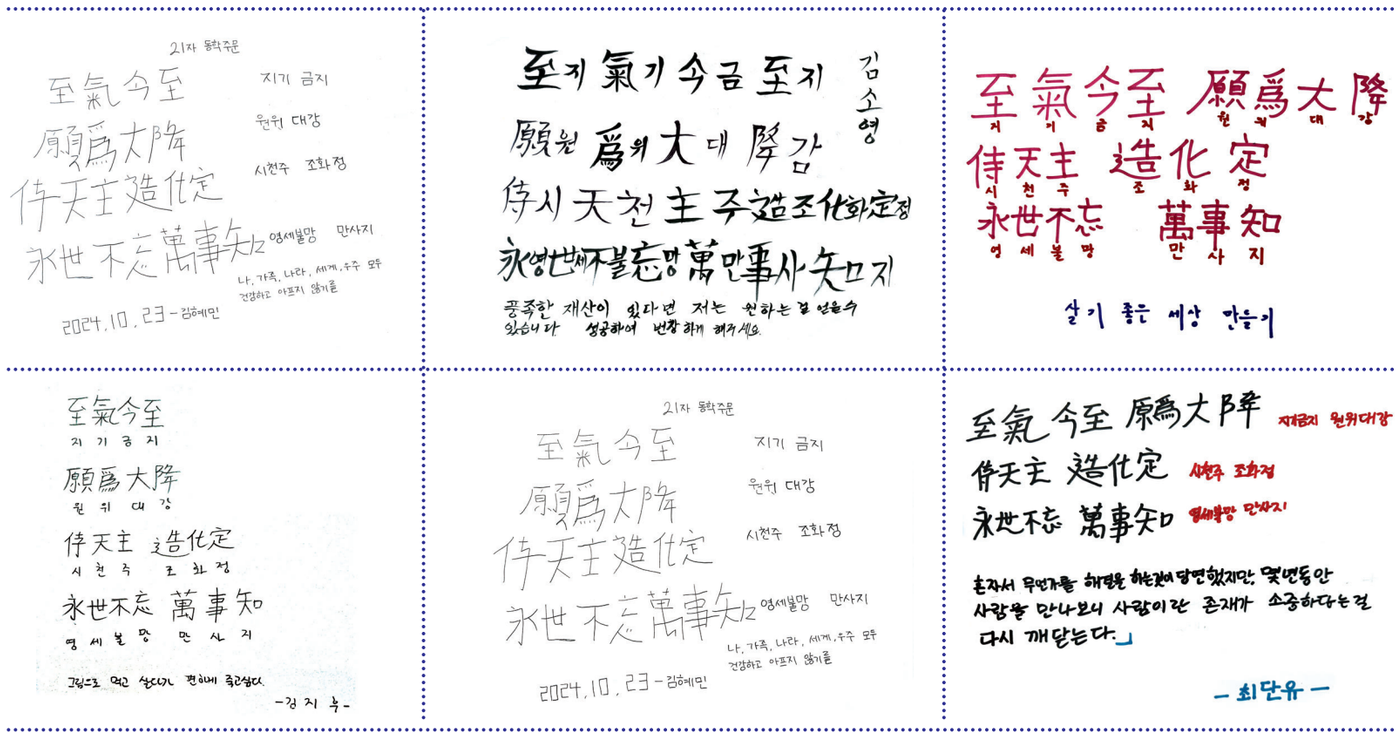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장흥장평중 학생들은 교과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와 세계를 연결 지어 학습하였다. 학생들은 5월에 '장흥과 동학, 그리고 일본'이라는 주제로, 9월에 '장흥과 임진왜란, 그리고 일본'이라는 주제로 2차례에 걸쳐 원광대학교 박맹수 교수의 특강과 유적 답사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기 중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 간 연계 학습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에 학습한 내용을 직접 체험하며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글로컬 국외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1년여 동안 진행되는 글로컬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장흥장평중학교 졸업생과 장평지역민들은 장평중학교 글로컬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여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글로컬 국외 체험학습을 비롯한 프로젝트 활동으로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다.

시천주 조화정(동학 21자 디자인·주문에 담은 소망)



회사원·예술가… 내일을 꿈꾸는 장평중 3학년

웹툰작가·에니메이션 작가·바리스타·대기업 직원·한전 직원 각각의 개성이 담긴 모습을 꿈꾸는 장평중의 보배들.

"박맹수 총장님 역사수업 감사해요"

먼곳까지 오셔서 역사수업 안내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어요. 장흥 작은 학교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명 '맹물'이 인상적이었어요.

박건우

강의를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름은 '맹수'라고 하시면서 '어흥'이라고 하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김소영

■ 인물로 보는 동학

그림 김지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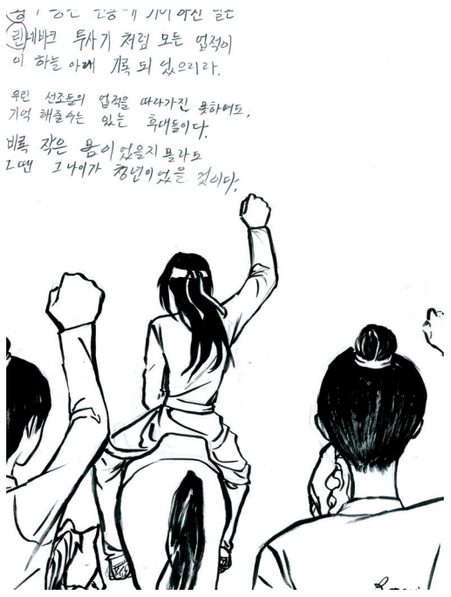
여성 선봉장 '이소사'

이소사는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많이 없기에 사실 예전부터 찾는데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이소사에 대해 조금은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소사는 위의환이라는 분으로 인해 동학과 관련된 기록이 처음으로 발굴, 번역됐다. '장흥동학혁명과 그 지도자들'에 이소사의 기록이 처음 실렸다는 사실에 이소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좋았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사실에 대해 매우 슬펐으며, 안타까웠다.

그리고 19세기 말 남녀차별이 심한 이시대에 이소사가 농민군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웠다. 불리한 환경이었을지도 몰랐던 상황에서 이소사가 많은 일을 해낸 것은 역사에 계속 기억되어야하며 잊어서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최단유 기자

청년장수 최동린 소년 뱃사공 윤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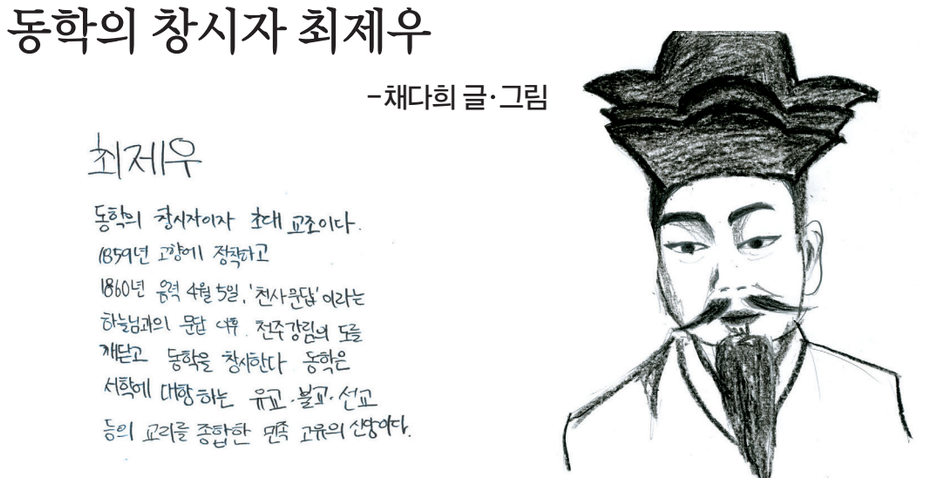


최동린과 윤성도는 1894년 장흥동학농민혁명 석대들 전투를 주도한 사람들이다. 석대들은 동학농민혁명 격전지중 한 곳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민군과 마을 사람들은 일본군으로부터 지켜낸 소년 뱃사공 윤성도와 청년 장수 최동린의 헌신에 주목했다. 윤성도는 당시 16세의 나이로 5000명 이상의 농민군을 일본군 연합으로부터 한밤중 농민군을 배에 태워 인근 약산과 청산 등 여러 섬으로 피신시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켰다. 최동린은 17세의 나이에 누구보다도 용맹한 기세로 농민군을 이끌며 선도하다가 일본군에 잡혀 처형을 당했다.

두명 모두 10대의 나이로 목숨을 걸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 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아무나 쉽게 목숨을 걸지 못하지만 더욱 어린 나이로 업적을 세웠다는 점에서 어떤 각오를 해야 그럼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전투에 참여했는지 궁금하다.

박건우 기자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채다희 글·그림